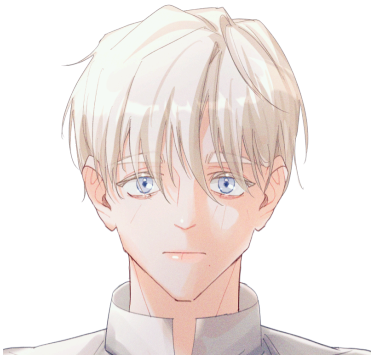
공 개 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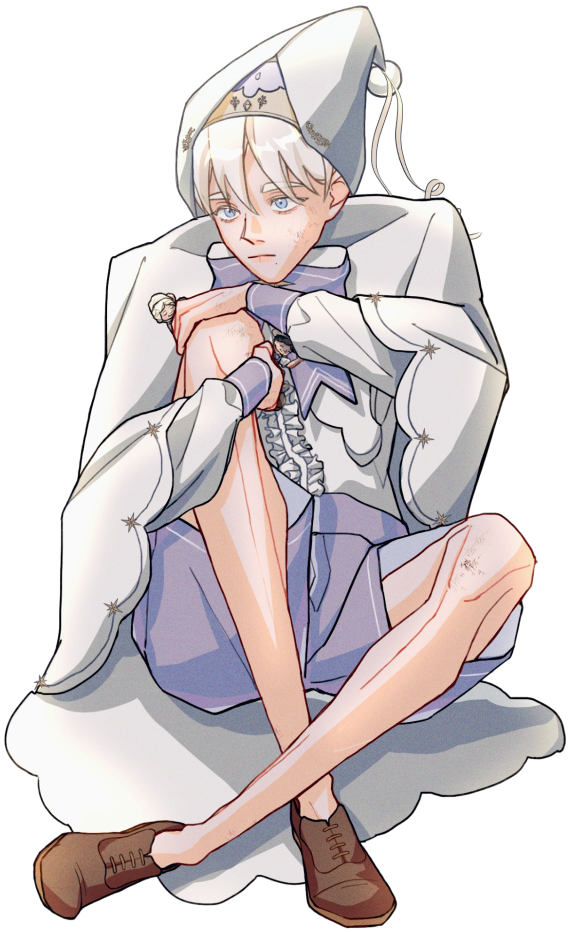
[바스러진 날개]

" 나 같은 게 할 수 있을 리 없잖아… "

두상



외관



그 아이의 첫인상은 **날개 바스러진 나비**를 닮았다.

봄날이면 흔히 보이는 나비처럼 *따스하고 밝은 색채*,

펼쳐진 온 날개에 새겨진 문양처럼 *가녀린 섬세함*,

그러나 그 끝이 바스라져 지상을 배회하는 *우울함*.

추수를 끝낸 들판 위에 햇볕 내리쬐듯 따스한 빛깔의 **밀색 머리칼**은 밝은 빛 아래에 서면 언뜻 은백발로 착각할 정도로 색이 무척 옅다. 매무새를 정돈해줄 어른이 없는 것인지 직접 서툰 손길로 다듬은 머리카락 끝이 잔뜩 들쭉날쭉하고 아이의 가벼운 움직임에도 쉽게 흐트러져 햇빛에 바스라졌다. 앞머리는 자연스레 눈을 살짝 덮을 만큼 길고, 뒷머리는 목덜미에 닿을락 말락 짧다. 가끔 앞머리가 시야를 가리면 귀 뒤로 쓸어 넘기기도 하나 가늘고 힘없는 머리칼은 손길이 무색하게 스르르 풀어졌다.

그 주인을 닮아 흐릿하고 푸석한 머리칼에서 시선을 아래로 내리면, 마찬가지로 자기주장 없는 옅은 눈썹과 유순한 곡선의 눈매 안에 자리 잡은 **소라색 눈동자**를 발견할 수 있다. 온전한 하늘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탁하고, 보랏빛 물감을 한 방울 섞은 듯 미묘한 색의 눈동자는 아이의 *생일 무렵 피어나는 수국*과도 빛깔이 닮아있다. 적당히 분홍빛 도는 혈색 좋은 피부와 어우러져 그 나이대 어린이에게서 볼 수 있을 법한 풋풋한 싱그러움을 자아낸다.

평상시 **아랫입술을 꼭 깨물고 있는 버릇**은 아이가 지닌 특징 중 하나였다. 늘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모양새로, 누군가 이유를 물어도 그저 습관인 듯 이렇다 할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 아래로 살짝 처져 순해 보이는 눈매와 어우러져 어쩐지 억울해 보이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옷은 딱히 선호하는 종류가 없어 주는 대로 잘 입는 편. 다만 아카데미 교복처럼 장식이 많이 달린 옷은 처음 입어봐서 행동거지가 조금 어색해 보이는 면이 있다. 딱히 부주의한 타입은 아닌 것 같은데도 몸 여기저기 구르고 깨진 상처가 남아있는 점이 의외다.

이름

벨제 스이엘 셀레스티얼 / Beelze Suiel Celestial

성별

남성

나이

10

신장 • 체중

142cm / 35kg

신분

바트룸

종

인간

스탯

체력	위력	마력	속도	지능
1	3	1	2	3+1

성격

[자발적인 호구 / 자기파괴적인 친절 / 평범한 소년]

자발적인 호구 / 눈치 보는 / 둔감한

"너한테 줄게."

딱히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쩔쩔매는 태도는 원죄에 매여있는 비굴한 죄인을 떠오르게 한다. 아이에게서 뭔갈 얻어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그저 그의 앞에 가서 원하는 것을 말하기만 하면, 아이는 무엇이든 내어주는 것이 자신의 당연한 의무인 듯 제 몫을 뚝 떼어 당신에게 건넬 것이다.**

때로는 굳이 입 밖으로 말을 내놓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가져다 바치는 지나친 배려를 보여주는데, 이는 아이가 주변의 눈치를 늘 살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눈치를 많이 본다고 해서 눈치가 빠른 것은 아니지만… 고맙다는 말에도

그저 한 번 웃고 마는 것이 칭찬에 목마른 아이의 행동이라기보다는, 타인을 위하는 행동 자체에 기쁨을 느끼거나 이로써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위안을 얻기 위함이라는 쪽이 더 설득력 있다.

자기파괴적인 친절 / 자책하는 / 오만한

"전부 나 때문이야."

아이는 자책이 습관인 듯싶었다. 내 잘못도 내 탓, 다른 사람 잘못도 내 탓, 불가피한 상황도 내 탓… 전부 자신에게 돌린 뒤에야 후련한 듯 모든 화살을 감내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그저 자신의 부족함이겠거니 넘어가는 버릇은 오히려 상황의 악화를 부추길 뿐이며, 다른 사람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오만일 수 있음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
혼자 속이 썩어 문드러질지언정 남을 상처입히는 짓은 결코 하지 못하는 답답한 성격이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맞아본 사람이 그 고통을 가장 잘 안다고, 자기 자신이 상처받기 쉬운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상처받을지 또한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타인을 해치지 않고자 하는 마음과 정작 자기 자신은 아끼지 않는 모순이 합쳐져 상대를 최대한 배려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세심한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제 내면을 깎아 빚어낸 친절은 서투르지만 부드럽다.**

평범한 소년 / 미성숙한 /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모자는 꼭 써야 해요? 거추장스러운데…"

나이답지 않게 가라앉은 첫인상과는 별개로 아주 평범한 10대 소년이다.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는 않지만 진실을 말하기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면 적당한 변명거리로 둘러대기도 하고, 정작 교묘한 거짓과 포장이 필요할 때는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미숙함**을 보여준다. 불합리한 상황이 닥쳤을 때 큰 목소리로 반항할 용기는 없으나 뒤에서는 적당히 말을 돌려 투정하는 깜찍한 면모를 감추고 있다.
이처럼 언뜻 보기에는 어른의 말에 순종하며 또래와 어울리는 데에 서투른 내성적인 소년이지만… 우리는 늘 겉모습으로만 상대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만큼 **속에는 더 많은 화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원래 평소에 조용하던 사람이 화가 나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기타사항

생일

- **6월 1일**

  탄생과 상실의 날

  탄생화: 장미(Median blush rose)

  나의 마음 그대만이 아네

탄생석: 사파이어(Color change sapphire)

이면성

출신 지역

"우리가 박제하는 것은 사체뿐만이 아닙니다. 사랑과 추억이 그것과 함께 머무르죠."

살루스, 그중에서도 **세데스 위쪽의 장인 거리**로 들어서면 줄지어있는 가게들 사이에는 유난히 먼지가 많이 쌓여있는 검은색 지붕과 간판, 그리고 그 위에 예스러운 필기체로 **'박제 전문'**이라고 쓰여있는 3층짜리 작은 건물이 하나 끼어있다.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다면 발견하지 못할 만큼 눈에 띄지 않는데, 먼지 쌓인 간판과는 달리 닳아서 반들반들한 문턱을 보면 의외로 많은 손님이 가게를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1년 전의 사고로 인해 근방의 여느 건물들이 그렇듯 한쪽으로 기우뚱 기울어 다소 불안해 보이는 모양새다. 1층은 가게, 2층은 작업실, 3층은 가정집으로 쓰고 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의 문은 굳게 닫혀 1년째 열리지 않는다.

가족관계

부계로 박제 사업이 대물림된다. 여느 장인들이 그러하듯 이곳의 박제 기술도 도제식 교육을 통해 아래 세대에게 전달되는데, 외부에서 기술을 배우겠다며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가업의 명맥은 이어야겠으니 대대로 집안의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잡일을 도우며 일을 배우게 시켜온 것이다.

도예가였던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늘 들고 다니는 작은 도자기 인형들은 어머니가 살아생전 만든 것으로, 만든 이의 성정을 보여주듯 유려한 선과 섬세한 세공을 뽐낸다. 박제를 의뢰하기 위해 가게를 찾는 손님만큼이나 솜씨 좋은 도공이 빚어낸 장식품을 구입하기 위해 가게를 찾는 손님도 많더랬다.

지금은 가게 3층의 가정집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고 있다. 현재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와 딱히 친밀한 사이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소지품

"자, 이렇게 하면 인형도 외롭지 않겠지?"

작은 도자기 인형 두 개. 아이가 무척 소중히 다루는 물건으로, 다른 사람의 손에 절대 내어주지 않는 유일한 것이기도 하다.

인간관계

"가까이 가지 말랬지! 저 애 옆에 있다간 무슨 불똥이 튈지 몰라!"

대개 치고받고 싸우며 친해지는 동네 꼬마들의 주류 무리와 어울리기에는 그의 조용한 성정이 맞지 않았고, 오히려 **소꿉놀이** 같은 데 자주 동원되곤 했다. 그러나 1년 전부터 그가 일으킨 지진으로 인해 주변이 온통 쑥대밭이 되며 **마을의**

위험인물로 찍힌 탓에 이제는 그마저도 여의찮다. 그가 아카데미로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을 어른들 대부분이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들 사고 당시의 충격이 컸던 탓이다.

어느 무리에서든 주도하지는 않으나 대신 **곧잘 따르는 편**이라 특별히 모난 구석은 없다. 아마 아카데미에서도 비슷하지 않을까?

취미

"동산에서 뛰놀던 아이들은 이제 자러 갈 시간…"

여러 곡조를 종종 흥얼거린다. 그의 어머니가 아이를 재울 때 불러주곤 하던 것이라 자장가나 지역 민요가 대부분이다. 가사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해 거의 반쯤은 콧노래다. 아직 변성기가 오지 않은 소년의 미성은 꽤 듣기 좋다는 평을 받는다.

특기

아직 **박제** 기술을 제대로 배운 적은 없으나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어깨 너머로 견식한 것이 상당한지라 흉내 정도는 낼 줄 안다.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은 것인지 **흙이나 점토로 무언가를 빚어 만드는** 일에 재주가 있다. 주로 소꿉놀이에 쓸만한 작은 그릇이나 식기 따위를 잘 만든다.

호불호

- 호: 한적한 공간, 도자기 인형, 박제품
- 불호: 마법, 고열,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

기타

- 양손잡이.
- 신체 감각이 상당히 **둔한** 편이다.
- 어른에게는 존댓말을, 또래에게는 반말을 사용한다.
- 숨소리가 닿을 만큼 타인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접촉하는 것을 꺼린다.
- 머리가 영리해 습득은 빠르나 자신감이 지나치게 없는 탓에 학습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